

러시아의 결인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부 지부장

김 돈 균

도스토예프스키와 차이코프스키 묘가 있다는 호기심으로 러시아 산업보건 연구센터 시찰단 일행이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수도원 유적지를 찾은 것은 성 페테레스버그에 도착한지 3일째인 오후였다. 대수도원 입구에서 유적지 안에 있는 트로이쯔키 교회까지 성호를 그리며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는 것은 중국의 북경이나 상



모스크바 푸쉬킨 박물관에서의 필자.

해에서처럼 공산주의가 개방되어 서구화하는 과정에서 볼수 있는 공통점인듯 하다. 러시아에 있어서의 결인과 중국의 결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러시아의 결인들은 구걸할 때 반드시 십자의 성호를 그리는 것에 있다하겠다.

칠십년간이란 공산주의 치하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란 표어 아래 말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일행에겐 성호를 그리고 있는 결인들의 행위는 페로스토이카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평소에 습관화되어 있듯이 자연스러운 것에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트로이쯔키 교회로 들어서니 교회안에서 정문앞까지 붉은 융단을 펴고 융단 양측으로 검은옷으로 정장을 한 러시아 정교의 신부들이 늘어서 있

어 우리 일행들은 어떤 축하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호기심을 갖고 행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결혼식이 거행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러시아 결혼식 광경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신부와 신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궁극한 우리들은 누구의 장례식이 거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지레짐작도 하여 보았다.

잠시후 패트를 카의 호위를 받으면서 검은 고급 세단차 몇대가 들이 닥치며 차에서 내리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 정교 신부들이었는데, 검은 모자에 검은 옷으로 정장하고 검은 모자의 모표는 은빛 십자가로 장식되어 있었다. 정렬하고 있던 신부들이 이를 정중히 환영하고 TV 카메라가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등분서주하는 광경은 또 한번 우리 일행을 놀라게 하였다.

종교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는 이 러시아 땅에서 정중한 종교 의식이 거행되어지고 있고 거리의 거지들이 자연스럽게 매사에 성호를 그리고 있는 것은 러시아 정교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생활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 혁명 지도자 레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 싸구려 보드카의 일종!”이라고 종교의 정의를 내리면서도 종교적 신념에 의한 권리상의 차별은 있어서 안되며, 반종교적 투쟁은 사상 투쟁에 국한되어야 하고 종교 불화에 의한 혁명투쟁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레닌이 종교정책에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 정교가 민중속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 일 것이다.

러시아가 서기 988년에 희랍 정교를 받아들여 국교로서 러시아 정교를 정립한 이후 14세기에는 산림을 개척하여 수도원을 지어 가면서 교세를 확장하여 나아갔다. 수도원의 주변에는 농민들이 모여들어 촌락을 이루게 되었으며 수도원은 자연히 농민의 지도자가 되었고 농민들은 언제나 주님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신앙심이 두터워져 신도수는 늘어나고 전국의 교회가 8만에 이르기까지 교세는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가 확립되면서 반종교 정책은 절정에 달하여 반소 운동을 전개하던 총주교는 체포되어 감금되고 종교탄압은 극심하여져 1930년 대에는 전국의 교회수가 1,000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모스크바에서는 교회의 종소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스탈린은 대독전쟁을 승리로 이끌기위하여 러시아 국민의 민족주의를 앙양하고,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기위하여 러시아 정교의 협력을 구하였고 정교회는 여기에 스스로 응하여 종교활동을 이어갔다. 스탈린은 1943년에 이르러 세르기예프 대수도원의 주교 등과 같은 정교의 지도자와 회견하여 공산정권과 정교회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1945년 전국의 교회수는 1만 6천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선에는 종군 사제를 파견할수

있을 정도로 종교활동을 전개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후반에 이르러 흐루시초프의 반종교운동 강화로 종교탄압이 재개되어 1964년도에는 교회의 수가 1만 이하로 다시 감소하게 되었다. “신자는 소련 국민, 노동자, 애국자이며 자랑스럽게 스스로의 신념을 표현할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갈파한 고르바초프는 러시아 정교의 피멘 총주교를 비롯한 6명의 지도자와 회담함으로써 러시아 정교의 봄은 찾아들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기독교 수용 천년제”를 축하하는 사절들이 세계의 1백여개국에서 참석한 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1천년 전통의 러시아 정교를 이겨낼수 없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자고트스크의 트로이체 세르기예프 대수도원, 키에프의 페체르스키야 대수도원, 성페테레스버그의 트로이츠키교회 등의 사회적 종교활동은 활발하며 러시아의 관광이라 하면 러시아 정교의 수도원이나 사원이 관광 코스의 전부라고 하여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정교의 많은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은 길거리 걸인들이 그리는 자연스러운 성호를 이해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

